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 우호협정체결 도시 정책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외 연수 보고서

- ◆ 연수기간 : 2018. 9. 17.(월) ~ 9. 21.(금)/ 5일간
- ◆ 연수장소 : 대만
- ◆ 연수인원 : 9명(의원 5명, 직원 4명)

논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서

1.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2. 연수국가	
3. 연수기간	
4. 연수대상	
2. 연수일정	2
3. 방문도시 현황	3
4. 주요 연수내용	4
1일차 지역전통문화 및 역사 자원 활성화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 사례조사	
■현장탐방 : 국립고궁박물관, 단수이, 타이페이 용산사, 재래시장	
2일차 의회 제도운영, 의정활동 및 도원시 농회 우호 교류 증진	
■공식방문 : 도원시의회, 원전스마트농장, 도원시대계구농회	
3일차 지역전통문화 체험관광 상품화 및 도지재생 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	
■현장탐방 : 스펀, 지우펀, 국립야류해양공원	
4.일차 자연·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광지 운영 사례 조사	
■현장탐방 : 화련태로각협곡	
5. 정책 시사점 및 총평	11
■타이완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상품 개발	
■식물공장은 미래의 선진국형 사업	

1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논산시와 대만 도원시간 체결된 우호협정을 확고히 하고 도원시의회와 논산시의회와의 상호정보교환 등 우호교류 간담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
- 논산시 4-H본부와 자매결연하여 30년간 왕래하고 있는 대만 도원시 대계구 농회를 방문하여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양도시 간 민·관 주도의 교류로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도시재생 우수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논산시 문화·관광사업 및 도시재생업무 추진에 접목

2. 연수국가 : 대만

3. 연수기간 : 2018. 9. 17(월) ~ 9. 21(금) 4박5일

4. 연수대상 : 9명(의원 5명, 사무국 직원 4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논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	부위원장	최정숙	
"	위원	이계천	
"	위원	서원	
"	위원	김남충	
의회사무국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병덕	
"	행정 8급	이찬우	
논산시참여예산실	참여예산실장	전민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	

2

연수일정

일 자	도 시 명	세 부 일 정
제1일	인천 - 타이베이	■인천 국제공항 출발 ■타이베이 국제공항 도착 ■현장탐방 : 국립고궁박물관 - 5,000년 중국역사의 보고 ■현장탐방 : 단수이, 타이페이 용산사, 재래시장 - 도시재생 사업 현황 ■현장탐방 : 타이페이 101빌딩 -내진설계 표준 건축물 견학
제2일	타이베이	■공식방문 : 도원시의회 - 의회제도 및 운영/의정활동 전반 비교연구 및 교류 ■공식방문 : 원선스마트 농장 견학 ■공식방문 : 도원시 대계구 농회 방문 - 간담회 오찬
제3일	타이베이 - 스펀 - 지우펀 - 국립야류 해양공원	■현장탐방 : 스펜 - 천등 띄우기 체험 ■현장탐방 : 지우펀 탐방 -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현장탐방 : 국립야류해양공원 -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
제4일	화련	■현장탐방 : 화련 태로각 협곡 - 미디어 콘텐츠 연계 관광산업화 사례
제5일	타이베이 - 인천	■대만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3 방문도시 현황

도원시(桃園市, Taoyuan)

일반현황

- 위 치 : 대만 북서부에 위치한 직할시
- 면 적 : 1,220km²
- 인 구 : 2,116,988명(2016)

도시특징

- 대만 주요공항인 도원 국제공항 소재
- 해안가 구릉지에 위치한 교육과 공업의 도시

지리적 여건

- 타이완 북서부의 타이베이 수도권에 인접하는 대지에 위치
- 서북쪽에서 동남쪽에 걸쳐 뻗어있으며 동남부는 해발 300m이상의 구릉지임
- 북부는 신베이시, 남부는 신주 현, 동부는 이란 현과 접하고 있음



↻ 논산시 및 도원시 현황

구 분	논산시	도원시	비 고
위 치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만 도원시	
인 구	13만명	211만명(우리시의 16.3배)	
면 적	554.85km ²	1,220km ² (우리 시의 2.2배)	

※ 논산시와 도원시간 우호교류협정 체결(2016.10.25. 도원시청)

4 주요 연수내용

1일 차 지역전통문화 및 역사 자원 활성화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 사례조사

- 일 시 : 2018. 9. 17.(월)
- 장 소 : 고궁박물관
- 내 용 : 타이베이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에 위치한 고궁 박물관은 국민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되고 마지막 황제 푸이가 1924년 자금성을 나오면서 고궁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됐다. 1931년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에게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가 패주하면서 군함을 이용하여 자금성의 보물들이 타이완으로 운송되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다.



- 일 시 : 2018. 9. 17.(월)
- 장 소 : 서문딩 거리, 타이페이 용산사, 재래시장(야시장)
- 내 용 : 한류의 원조 한국 가수 클론이 서문딩 거리에서 공연을 해서 유명한 거리이기도 하다. 서문딩 거리의 메론 빙수는 한국 관광객들이 대만에 오면 먹어보는 길거리 음식이다.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대만의 야시장과 대만의 전통 사찰인 용산사를 둘러보며 지역의 전통과 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보여 우리시의 낙후된 화지동, 반월동 구도심 활성화의 벤치마킹이 사례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됨.



○ 일 시 : 2018. 9. 17.(월)

○ 장 소 : 타이베이 101타워 (세계금융센터)

○ 내 용 : 2004년 준공된 타이베이 101타워는 509.2m 높이의 지상 101층, 지하 5층짜리 초고층 빌딩이다. 대만은 지진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중요하다. 가장 유명한 제진설계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2일 차 의회 제도운영, 의정활동 및 도원시 농회 우호 교류 증진

○ 일 시 : 2018. 9. 18.(화)

○ 장 소 : 도원시의회 9:30~10:30

○ 내 용 : 86년도 논산시농업기술센터와 도원시 대계구 농회와의 30여년의 민간교류가 지방정부간의 교류로 확대되었다. 도원시는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대만은 정치적으로 야당인 국민당이 통일을 강조하며 친 중국적 정책을 하고 있으며, 여당인 민진당은 대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에 부정적이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상황의 차이를 보였다.

도원시의회 양가람 의원은 한국은 대만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고, 얼마 전 한국을 방문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으며 대만과 한국의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 했다.



○ 일 시 : 2018. 9. 18.(화)

○ 장 소 : 웹선스마트 농장 방문 11:00~12:00

○ 내 용 : 경제성장과 함께 마음의 풍요시대가 도래, 농업도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농업 대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농업을 육성으로 도시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시도 농산물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농업은 미래 농업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유지하며 나아가 후손에 물려준 우리 국토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일 시 : 2018. 9. 18.(화)
- 장 소 : 도원시 대계구 농회 16:00 ~
- 내 용 : 논산시 4-H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계구 농회의 논산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초청에 의한 방문, 대계구 농회 업무보고 청취, 1986년 논산시 4-H본부와 중화민국 도원시 대계구 농회는 지금까지 3회 차 600여명이 방문하였다.



9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계구는 큰개천이 있다고 하여 대계구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농회는 1933년 창립되었으며 21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45명의 조직의 대표가 농회를 이끈다고 한다. 45명의 대표 중 9명의 이사가 농회의 살림을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남충 의원은 우리나라의 쌀 수매에 대해 이야기 하며 대만 농회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대만 농회에서는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는 일은 없고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구본선 위원장은 대만 농회의 사업 중 유치원 및 간병사업 등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농협과 비교해 창의적이며 인상적인 사업이라 말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은 대만 도원시 농회가 30여년 농산과의 교류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 농산물의 교류는 없어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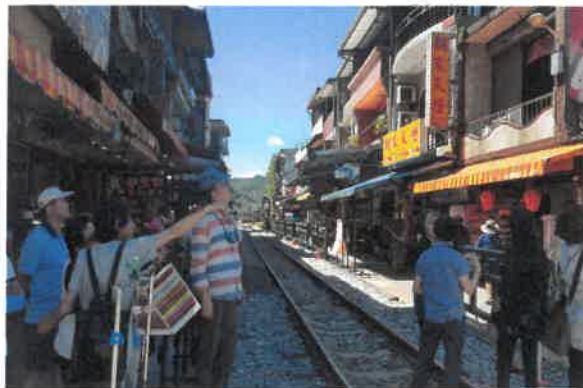
시켜 나가자고 구본선 위원장은 말하며 농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 논산시와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자고 밝혔다.

3일 차 지역전통문화 체험관광 상품화 및 도지재생 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

○ 일 시 : 2018. 9. 19.(수)

○ 장 소 : 스펀, 지우편,

○ 내 용 : 천둥 날리기의 발상지인 스펀은 타이완의 기차 간이역 중 하나로 기차길을 가운데 두고 양 쪽에 늘어선 건물과 노점, 아기자기한 소품가게 등이 있는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 광물을 운반하기 위한 수탈의 흔적이지만 그때의 철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예능TV 꽃 보다 할배에서 명성을 얻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미디어컨텐츠를 연계한 관광 산업화의 좋은 사례이다.



○ 일 시 : 2018. 9. 19.(수)

○ 장 소 : 지우편, 야류해양공원

○ 내 용 : 쇠퇴한 탄광도시였던 곳을 재조성하여 개발시킨 곳으로 1920년에서 30년대 아시아 최대의 탄광도시로 불려 졌던 곳을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재개발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비정성시, 온에어 등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 명성을 얻었다.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의 좋은 사례이다.

야류는 타이완 북쪽 해안 지룽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베이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야류 지질 공원의 바위는 석회질

로 수 만년 전부터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독특한 모양의 바위로 생성된 것이다. 파도가 만들어 놓은 기암괴석들이 독특한 이름을 지니고 있어서 왕관을 쓰고 있는 듯 여왕머리바위, 계란바위, 목욕하는미녀 바위 등 파도의 조각 솜씨를 십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4일 차 자연·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광지 운영 사례 조사

- 일 시 : 2018. 9. 20.(목)
- 장 소 : 화련문화관광지
- 내 용 : 태로각 협곡은 평균 해발 2,000m의 거대한 대리석 협곡으로, 대만에서 4번째로 지정된 국가 공원이다. 면적 920km², 길이 20km의 규모로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해발 3,742미터가 넘는다고 한다. 이곳을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관광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둘러 볼 수 있다. 비가 오면 낙석이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잦다고 한다. 우리시도 탐정호수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기대된다.



연자구는 해발 247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절벽 아래 바위에 자연적인 침식작용으로 있는 구멍들을 제비들이 자신들의 둥지로 자주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제비들이 살았으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공사가 계속되자 이곳을 찾는 제비들의 수도 매년 적어진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인공적인 도로 없이 자연 그대로의 깊은 산과 협곡만 있었으나, 장개석의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서 패배한 후 대만으로 도피하면서 가져온 보물들을 옮기기 위해 1957년부터 3년간 대만의 원주민들과 수감자들 2만여 명을 동원하여 지금의 이 태로각 협곡의 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5 정책시사점 및 총평

1. 정책시사점

<타이완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 지방자치제도가 한국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최일선 행정책임자인 이장·동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풀뿌리지방자치’사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 도입·확산되고 있는 주민자치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 사례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상품 개발>

- 대만이 전통과 자연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관광 대국으로서의 또 다른 저력으로 느껴졌으며, 우리도 우리의 것을 살린 문화상품 개발이 필요로 함을 느꼈다.
-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의 다양한 전시실과 수준 높은 유물 시스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 등을 참조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공장은 미래의 선국형 산업>

- 우리나라는 아직 식물공장의 사업화에서 초기 단계에 있으나 여러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식물공장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식물공장은 요소기술의 개발과 시스템화를 통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식물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

2. 총 평

- 이번 연수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지방자치,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리시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도원시와 대계구, 대계구농회를 방문하여 기관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도시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